

천태종 총무원장 26년

운덕스님
박사회



제 7대에서 현 13대에 이르기까지 26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25개 가급 종단 수장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이다.

대한불교 천태종 전운덕 총무원장 스님(사진)이 3월1일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운덕 스님은 1980년 군부독재에 의해 사찰이 유린된 10·27법난 이후인 1981년 7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현 13대에 이르기까지 26년간 종단 행정의 수반 역할을 해왔다.

26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운덕 스님이 천태종을 위해 남긴 업적은 너무나 많다. 가장 우선 순위로 종단 관계자들이 꼽는 것이 종도수의 현저한 증가. 천태종 관계자에 따르면 80년대 초 110만명이던 천태종도가 현재는 23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교세가 두 배로 확장된 것이다.

스님은 교세확장과 더불어 교리 및 신행체계 확립 등에 힘써왔다.

이는 종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생활불교,

대중불교, 애국불교의 종지를 충실히 종도들에게 전하고 실천에 옮긴 결과라고 종단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최근까지도 운덕 스님이 개성 영통사 복원에 이어 개성 국청사를 복원하려는 야

심찬 계획을 추진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각국사가 출가하고, 천태교학을 설파한 개성의 절을 복원하는 것은 천태종으로서의 '뿌리찾기'이자 '불맥 잇기'로 종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상월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려는 운덕 스님

의 열정은 95년부터 본격화됐다. 천태종의 시발점인 중국 절강성 국청사에 한층 천태조사 기념당을 건립하고 수차례의 세미나와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천태사상을 널리 알렸다.

이러한 노력은 재장건한 40년밖에 안돼 신흥종교로 인식되던 천태종의 정통성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행체계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해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운덕 스님은 우선 기도법을 단일화시켜 관음정진을 종단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정착

시켰다. 관음정진은 상월 원각 대조사가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여러 대승경전을 바탕으로 증명한 것으로서 복잡하고 비싼 현대인들이 행주좌와를 가리지 않고 닦을 수 있는 수행법이다.

또한 본말사의 기도실을 24시간 개방해 신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는 주로 대도시에서 사찰이 밀집해 있는 천태종의 특성상 도심포교에 큰 뜻을 했다는 평가다.

운덕 스님은 신도들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춘천 울산 등에 5

개의 금강불교대학을 설립했다. 교양대학 성격인 금강불교대학은 등록금 전액을 종단에서 지원하며, 수많은 포교사를 배출해 냈다.

2002년, 교육과 불교인재양성에 대한 끝없는 원력은 논산에 4년제 정규대인 금강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대내외에 천명이 되었다.

천태종 사찰을 재가불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자리잡게 한 것도 운덕 스님이 밀어붙인 일이다. 천태종은 모든 사찰의 운영 특이 재정부분을 재가신도들이 맡고있다. 이것은 사찰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주일 기자

‘뿌리찾기’로 교세 확장 견인

중국·북한 교류 통해 ‘정통성’ 다지기 팔목 ‘생활불교·대중불교·애국불교’ 실천 앞장

신행체계 현대적 정비 불교계에 새바람 재가자 중심 사찰운영 확립, 재정 투명화



백호정사 건립 당시부터 꾸준히 후원 연 2회 수계법회 정기적 지원 등 약속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교구본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쌍계사가 동참해 군포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원정)는 3월 5일 205특공여단 군법당 백호정사와 결연을 맺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쌍계사 주지 원정, 교무국장 장선, 포교국장 수완, 강원 학인 상님, 성원, 문현 스님과 쌍계사 합창단, 11군단 김철호 군법사, 백호정사 신도회장 손원탁 신병교육대장, 진주 선우선방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번 수계법회에는 군장병 150여명이 5계를 받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이날 쌍계사가 음료수, 과일, 떡 등 위

문품을 준비해 불자 장병을 위문했고 매주 백호정사 법회 도우미 역할을 하는 진주 선우선방(대표 유어여화보살) 회원들도 수계 장병들에게 일일이 합장주를 보시했다.

법회가 끝난 이후 장근영 여단장과 공양을 함께한 자리에서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은 "사중 스님들이 군 포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사중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계법회를 실시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근영 여단장은 "비록 천주교 신자이지만 정서적으로 불교에 관심이 많고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다"며 "스님이 이렇게 법당을 방문해 수계법회를 열고 불자 장병에게 힘을 실어주시 부대장으로서 고마움 따름이다"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가 205특공여단 군법당 백호정사와 결연을 맺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쌍계사는 사실 205특공여단 백호정사와 이미 결연을 맺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관계였다. 2001년 백호정사 건립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며 금전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기공식, 준공식을 모두 주관하는 등 법당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법당 설립 이후에도 군법사가 상주하지 않아 사중의 포교국장 소임을 맡은 스님이나 학인 가운데 지도법사를 1명 위촉해

해주어 항상 감사해하고 있다"며 "결연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진다는 소식에 불자장병들과 군법당 신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쌍계사가 이처럼 군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주지 원정 스님 때문. 원정 스님은 "사중의 어린 스님들이 먼저 군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니 자연스럽게 군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수계법회를 지원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쌍계사 포교국장 수완 스님은 "그동안 백호정사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면서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열심히 군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제일 행복했다"며 "사중의 어린 스님들이 먼저 군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니 자연스럽게 군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쌍계사, 205특공여단 백호정사와 결연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봉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넓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제 2회 사천왕사 무상천도제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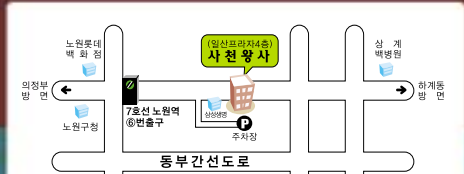
건국이후 수많은 외세 침략과 6.25동란등의 여러 악재를 겪으며 비명횡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 구원을 행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조상님께 효를 다하지 못한 불자들이 위하여 우담바라 피어난 성지 사천왕사에서 원력 깊은 대덕 큰스님들을 모시고 불교 범음법계의식과 국악한마당으로 장엄한 무상(무료)천도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

- 1부 : 범음법계천도의식
- 2부 : 국악한마당 (무형문화재 제9호 권명화 선생님 살풀이 등)



- 일시: 2006년 3월 19일(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사천왕사 대법당
- 주최: 사천왕사, 법화불교대학
- 후원: 지리산 건불사, 승가공동체 법회원, (사)행복한사회
- 접수마감: 3월 18일까지
- 문의: 02)939-3900 / FAX 02)939-3908
- 위치: 지하철 7호선 노원역 6번 출구앞 일신프라자 4층



우담바라 피어난 성지 사천왕사 주지 대웅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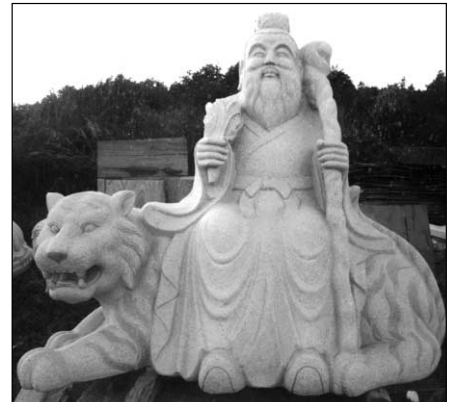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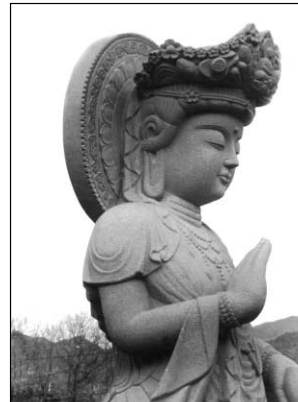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